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방중 의미와 전망

전현준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김정일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 되었다. 방중 사실자체부터 중국내 행보까지 철저한 보안속에 이루어진 김 총비서의 방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위폐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김정일 총비서의 행보를 위축시킬 법도 하지만 그는 과감히 해외순방을 택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거세질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대미 메시지일 수도 있다.

둘째, 김정일 총비서의 방중 핵심현안이 정치문제보다는 경제문제였다는 점이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위폐 및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김정일 총비서의 방중 목적이 정치 군사적 북중 공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방문지역이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개방지역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북중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강도 정책'에 대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김정일 총비서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철저한 협조가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진행된 김정일 총비서의 방중과 관련, 김 총비서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이 거론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고, 김정일 총비서의 북한으로의 귀환 직후인 2004년 4월 22일 발생한 용천 폭발사건을 거울삼아 중국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당시 김정일 총비서의 일정이 중국 외교부를 통해 흘러나왔고, 용천 폭발사건 직후 북한의 거센 항의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곤욕을 치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김정일 총비서의 안전은 물론 체제안전에까지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인권문제에 관한 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중국은 북한편에 설 것이다.

넷째,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금번 방문단에 북한의 군부 실세는 물론, 전병호 등 제2경제위원회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중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제2단계 제5차 6자회담 조기복귀, 위폐문제 원만한 해결 등의 권유를 받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최신무기 공급 및 군수공업 지원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총비서의 방중 이후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미 2005년 10월 2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전제로 김정일 총비서가 약속한 바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을 공표할 경우 대폭적인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 되지만 북한의 ‘신대외개방’이 중국만의 지원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 등의 지원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북중 경제관계 개선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북중관계 개선을 계기로 북한이 당분간은 대미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협조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번 김정일 총비서의 방중을 통해 북중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획득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북중관계 개선으로 막아보려는 북한의 ‘유인외교전술’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마냥 미국과 대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미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북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비롯한 ‘정상국가화’를 촉구할 것이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북중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